

## <설 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하란으로 가는 중에 벵엘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의 꿈에 친히 찾아오셔서 복 주시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곱은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인 관점에서 모범이 될 만한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기적이고 경쟁적이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복을 주십니다.

야곱이 복을 받는 이유는 단 하나, 그가 언약을 이어받은 약속의 자손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무엇을 잘 한 것도, 잘못된 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았던 복이 야곱에게로 이어집니다. 어떤 복일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14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로 이어지는 복은 그들이 소유하는 복으로 그치지 않고 땅의 모든 족속에게로 흘러가는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 하신지라.”(창 12:2-3) 아브라함 자신이 복 그 자체가 된다고 합니다. 동일한 약속을 야곱도 이어받는 것입니다. 야곱이 복이 되고, 야곱의 자손들이 복이 되어 야곱을 만나는 사람, 야곱의 자손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다 복을 얻게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약속입니다. 복은 더 나은 조건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편드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벌하시고, 선을 베푸는 자는 복을 주셔서 그를 축복하는 자나 저주하는 자나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복을 얻게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동행하신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과 동행 하시며,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을 주시며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복을 주시며 복에 합당한 사람, 복을 전하는 존재로 만들어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담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야곱이 선택하여 가게 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자유를 인정하시고,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결정하며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선택한 길에 동행하십니다. 야곱은 젊은 시절 내내 눈앞의 이익을 좇아 살면서 사람들과 부딪치며 살아가고 수많은 위기에 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다시 벵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야곱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위대하고 영광된 존재로 완성 하셨습니다. 평생을 더 많이 갖고자 사람들과 싸우며 살았던 야곱이 말년에 바로 앞에 서서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창 47:7-10)에서 우리는 야곱의 인생의 절정을 봅니다. 그는 애굽 왕 바로가 부럽지 않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셔서 이렇게 만들어내셨습니다.

명절이 되면 각자의 삶을 치열하게 살다가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부러운 사람도 있고 걱정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마다의 기준에 따라 각자의 길을 걸어 갑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자들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존중하는 복된 명절로 모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 명절가정에배

신앙고백 ..... 다 함 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 370장(통455) ..... 다 함 께

- 1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탄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 2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 3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 4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 후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 도 ..... 가 족 중

성경봉독 ..... 창세기 28:13-15 ..... 다 함 께

또 본 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땅으로 돌아 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설 교 ..... 어디로 가든지 ..... 인 도 자

주기도문 ..... 다 함 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